

## 소프트웨어 論爭

### 市場 점유해 놓고 “開放 압력 웬말”

성기수(科技院 공학센터 소장)  
경향신문 85.11.16. 『槓釜日報』

『컴퓨터 소프트웨어시장을 즉시 개방하라』 『못하겠다』 『그러면 보험이나 앨범으로 보복하겠  
다』 『할테면 해보라』 이 논쟁은 한·미간 어느쪽에도 이로우게 없는 시간낭비일 뿐이다.

한국의 소프트웨어시장은 이미 미국세가 들어와 과반을 점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시장을 개  
방하라니 요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. 미제 소프트웨어를 수입금지한 일도 없고 불법 복제판  
이 시장에 나돈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수입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송금액이 연 수천만 달러에 달  
하고 있다. 현실에 비례한다면 소프트웨어 수입 자유화를 즉시 시행한다고 선언해도 더 이상  
손해볼 일이 없고 오히려 미국의 보호주의론자들의 한국시장 개방공세의 예봉을 꺾는데 도움  
을 줄 것이 분명하다. 비슷한 여건에 있는 대만과 홍콩이 모범생으로 오히려 칭찬받고 있는 것  
은 이와 같은 양보카드를 한두개 적시에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

소프트웨어 산업이 유치단계에 있으므로 상당기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한국의 소  
프트웨어기술의 현주소와 한·미무역의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 그 근거가 희박해 보인다. 과학기  
술분야 소프트웨어는 선진국의 기술이 책이나 사람의 두뇌속보다 주로 전자두뇌 즉 컴퓨터 안  
에 들어 있기 때문에, 우리가 아쉬워서 도입하는 각종 자본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적극 도  
입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고, 그 하나하나가 경제성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니까 문제될 것이  
전혀없다.

한편 경영전산화, 행정전산화, 올림픽 전산화 등 인문·사회분야 소프트웨어는 국내기술수준이  
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外産이 발붙인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. 유치단계에  
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. 즉 국제분업의 획이 분명히 그어져  
있음을 알 수 있다. 그렇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지적소유권을 인정하라는 미국정부의 압력은  
책을 복사한 전과가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복사도 했다고 몰아붙이는 폭언이 되겠고, 결백하면서  
도 앞으로 몇년 후에 손을 씻겠다고 답하는 것은 가히 愚問에 대한 愚答이라 하겠다.